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오늘은 기독교교육주일로 지키며 주일공동예배를 드립니다.
- 오후 2시부터 정관 초안에 대한 공청회(2차) 모입니다.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합니다.
- 기독교교육주간 새벽기도회가 18일(월)부터 23일(토)까지. 오전 6시에 비대면으로 모입니다. 한 주간 성서일기는 새벽기도 메시지로 대신합니다.
- 다음 주일(24일) 오후 2시에 공동체운영위원회와 교회운영위원회 연석회의 모입니다.
- 석용범 박영선 집사님가정이 이사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용민로 304 낙양동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507동 1203호
- 권보현집사 아버지께서 16일(토) 별세하셨습니다.  
조문은 안동 서안동농협장례식장. 장례식은 18일(월) 오전 6시.
- 평양노회 정기노회가 19일(화)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모입니다.
- 공동체학교는 이번 주간에 모두 비대면으로 수업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40 호  
2021년 10월 17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마이산에서 본 풍경

어느덧 10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에 테마 여행으로 멋쟁이들과 함께 전북 진안에 다녀오면서 마이산을 들른 적이 있습니다. 산이 들어앉은 그 모양새가 말의 귀 모양과 비슷하다 하여 마이산(馬耳山)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한 노인으로부터 금척(金尺)을 받는 꿈을 꾸고 나서, 마이산을 우연히 들렀다가 자신이 꿈에서 본 산이라 여겨, 백일기도를 하고 나서 조선 개국을 했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난 이후로 마이산은 성산(聖山)으로 여겨집니다. 후대 사람들은 성산의 지기(地氣)를 받아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이산을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지금껏 대권에 도전했던 이들도 비공개적으로 마이산을 찾아서 기도해 왔다고 합니다. 마이산 아래쪽에는 탑사(塔寺)라는 절이 있는데, 약 80여 기의 자연적으로 쌓아 올린 탑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높은 탑은 약 15미터 정도 되는데, 원추형의 몸통을 가지고 있고, 위의 부분은 첨탑 모양으로 수직으로 상단부에 쌓여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탑들이 자연적으로만 쌓아 올린 것이고, 쌓인 돌 하나하나 사이에 작은 돌들을 끼워 넣어 고정하는 방식으로 쌓았습니다.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수많은 태풍을 거치면서도 탑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축조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지만, 탑사는 이 탑들을 1930년대에 축조했다고 여겨지는 처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탑사에는 생전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형상이 있고, 산신을 모시는 사당도 함께 있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빌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절을 지어 그렇게 모신 까닭은 그 돌탑을 쌓는데 들어간 노력과 정성을 대단하게 생각하여, 매우 특별한 이로 여기고 섬기는 것일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서 치성을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곳에서 올리는 기도는, 마치 그런 행위가 보이지 않는 탑을 쌓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돌탑을 쌓을 때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쌓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토록 높게 쌓은 돌탑에도 수많은 소원과 바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탑사 왼쪽에는 마이산 한 면이 깎아지른 듯한 수직의 벽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조금 떨어져서 보면 마이산의 특이하고 웅장한 자태에 탑사의 돌탑들은 왜소하다 못해 상당히 압도되어 버립니다. 자연과 바람이 오랜 세월 조각한 마이산과 사람이 쌓아 올린 돌탑들이 너무 비교되어서 인간의 행적은 매우 초라해져 버립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시편 115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투영하여 자연물을 바라보기에 실제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연이 드러내고자 하는 원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연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형상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각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어떤 원리나 힘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셨고, 그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 말씀과 사귀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누군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이가 가까이 다가간다면, 우리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도와와의 사귀기를 기대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한 삶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육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 한주간의 말씀

“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 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 사무엘상 1장 28절a 말씀 >

### <수요기도회>

성경 : 시편 114편

제목 : 출애굽 사건에 온 땅이 주님 앞에서 떨었다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79 135 301 434

#### 1-2 출애굽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해석: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하여 상기 시킨다.

적용: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던 사건들을 잊지 말자. 후대에게 전하자.

#### 3-6 바다, 요단강, 산과 언덕의 반응

해석: 자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과 기쁨을 표현했다.

적용: 하나님께서 은혜받은 사건을 기뻐하며 표현하자./감사의 표현을 하자.

#### 7-8 온 땅아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해석: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 주관자 이심을 알았다.

적용: 하나님 앞에서 떨자. 하나님을 정확히 알자.

(전능하신 분, 주관자, 심판자-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행하자.)

##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가 여전히 안으로만 향하고, 우리 자신의 필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사람들이 저 깊은 곳으로부터 의미와 질서를 갈구하게 된 이때, 그들에게 답변을 전해 줄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현대생활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분명한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아버리고 단지 영적인 것, 성경 공부, 복음 전도 등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기독교가 개인적인 신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개인의 구원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기독교야말로 인류가 오랫동안 가져온 질문들, 즉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여기에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인생에는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는 총체적인 삶의 체계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 밝히려는 것처럼 기독교는 이 질문들에 대한 유일하고도, 이성적으로 변증할 수 있는 대답을 제공하고 있다. 기독교만이 물리적 질서와 도덕적 질서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기독교만이 삶과 사상의 모든 영역, 피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세계관을 제시한다. 기독교만이 현실 세계에 맞추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명을 주는 메시지를 이 세상에서 전하고자 할 때 우리는 먼저 복음을 우리 스스로가 이해하고 그것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진리의 원천이며 현실의 모든 측면을 이해하는 종합적인 틀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낸 18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기독교 진리의 지배적인 원칙은 구원론(즉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주론(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우주의 모든 영역과 나라들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주재권)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주 전체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기독교를 총체적인 진리의 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를 구속하고자 하는 노력을 불구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본다면 소위 말하는 문화전쟁은 신념체계 사이의 충돌이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후기 기독교문화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여 우리 주변의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마태복음 28 : 19-20 인도자  
67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고린도후서 5 : 17 인도자  
246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사무엘상 1 : 19b : 28 설교자  
249 사랑방  
“ 교육, 장(場)이 중요합니다 ” 정태일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438 다함께  
인도자  
455(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종필 이현숙 / 봉헌위원 : 전경희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은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 공동기도문

교육하고 훈련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신앙공동체가 교육과 훈련의 장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많이 채워주십시오. 아멘.

## 교육, 장(場)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을 주님께 바치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하며 지내는 중에 아들을 허락하시면 그 아이의 한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였습니다.<19-20> 한나는 아이가 젖을 떼었을 때,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말하며 사무엘을 주님께 바쳤습니다.<28>

교육, 장(場)이 중요합니다.    이후 사무엘은 “모시 예뻐 입을 주님” 섬겼고,<2:18>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며<26> 잘 자랐습니다.<21> 사무엘은 성인이 되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40년을 활동하였고,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며 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하게 흠이 없는 지도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의 이러한 삶은 신앙교육에서 장(場)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의 장을 회복하십시오.    교육의 문제는 곧 장의 문제입니다. 신앙교육은 신앙공동체를 장(場, context)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경험하는 곳입니다. 사랑방공동체의 교육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교육철학은 ‘신앙공동체를 장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공동체(가정, 교회, 학교, 사랑방성서모임)를 교육의 장이 되도록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김종필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기온차가 심한 무림리에 드디어 찬바람이 솔솔 불어옵니다. 신나게 뛰어 놀던 친구들의 코에서 콧물이 나거나 힘들어해서 집에서 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는 적어졌지만 곳곳하게 평소에 하지 않는 장애물 넘기 놀이를 하면서 신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10월에는 생일인 친구가 3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카드를 열심히 그렸습니다. 받을 친구를 생각해서 멋진 그림을 그리고 선생님과 글을 쓰는데 아이들은 참 진지합니다. 이틀에 걸쳐서 카드를 그리는데 놀고 싶다고 투덜대며 대충 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놀다가 쓰는 거라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잘 참고 집중하는 모습은 정말 멋집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생일카드는 생일자를 위한 아이들의 진심이 담겨있어 무엇보다 소중한 멋진 선물입니다.

가을비가 너무 와서 언제 밖에서 놀았는지 기억도 안나고 있었는데 드디어 짙짙한 햇볕이 우리를 비춰줘서 신나게 밖에서 놀았습니다. 공동체 한 바퀴를 돌며 산책도 하고, 그 동안 돌보지 못한 밭에서 가지도 따고, 하고 싶었던 모래놀이 등 아주 신나게 놀았습니다. 맑은 하늘, 시원한 바람 그리고 멋지게 변하고 있는 가을을 만끽하며 꾸러기는 즐겁게 지냅니다.

< 교사 : 이어람 >

### 어린이학교

비가 오락가락 했지만 맑은 가을이 참 예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뒷마당엔 축구하는 아이들의 고성이가 들리고 그네엔 언니들의 수다가 이어집니다. 축구를 빨리 하고 싶어서 밥을 어찌나 빨리 먹는지... ㅎㅎ~^^

권재만 선생님과 조익 선생님께서 울진으로 도보여행 답사를 다녀오셨습

배움과 가르침

니다. 아이들과 함께 걷게 될 곳을 걸으시고, 숙소도 알아 보시고, 중간중간 화장실도 체크하시고, 점심 먹을 장소도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느라 바쁘시고 힘드셨겠지만 힘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기도가 참 힘이 됩니다.

이번주 화요일에 도보여행 예행연습이 있습니다.

안전한 도보여행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현숙 >

### 멋쟁이학교

한글날 대체공휴일 후, 등교하는 멋쟁이들의 가방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바리바리 큼지막하게 싸온 멋쟁이가 있는가 하면, 나들이 가는 것 같은 차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안 장수로 떠날 것에 멋쟁이들의 얼굴은 모두가 한결같이 기대감으로 밝았습니다. 버스안에서 신나게 놀고 떠들다가 도착한 숙소는 포천보다도 더 오진 시골이었습니다. 생생한 체험을 준비해주신 스태프들께서 도와주셔서, 멋쟁이들은 직접 커다란 떡망치로 떡을 두들기면서 맛있는 인절미를 만드는가 하면, 방망이와 나뭇토막으로 신나는 가락을 함께 익혀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승마체험, 섬진강 자전거 투어, 가야 고분 탐방, 승마 체험 등 여러가지 활동으로 멋쟁이들의 눈과 발은 실새없이 오고 갔지요. 그 와중에 틈이 날 때마다 서로 사진을 찍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게임을 하는 멋쟁이들의 모습은 펍 즐거워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회가 주관해서 준비한 레크레이션, 좋은 풋살장에서 벌어진 불꽃리그전, 마지막으로 전주한옥마을에서 펼쳐진 조별 활동까지- 비록 전체가 함께 다녀온 테마여행의 아쉬움과 부상자도 있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소중한 추억들을 쌓을 수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여 보냅니다. 여행을 다녀온 멋쟁이들의 건강과 마음을 위해, 그리고 6학년들의 진로 결정과 준비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 프레임의 법칙

한 선생님이 매일 지각을 하는 학생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지각을 하는 것을 보고 그 학생이 껄뻘해서 회초리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 선생님은 차를 타고 학교에 가다가 늘 지각하는 그 학생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 눈에 봐도 병색이 짙은 아버지가 앉은 휠체어를 밀고 요양시설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선생님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각은 곧 불성실이라는 생각에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회초리를 든 자신이 부끄러웠고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단 둘 뿐이라서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하는 입장에 있는 지각한 학생. 게다가 요양시설은 문을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학생은 요양원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100미터 달리기 선수처럼 뛰어서 학교에 왔을 텐데, 그래도 매일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날 역시 지각을 한 학생은 선생님 앞으로 와서 말없이 종아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회초리를 학생의 손에 쥐어 주고 자신의 종아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라는 말과 함께 그 학생을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가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 사는 법'을 배울 때 가장 필요한 건 상대방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뭔가 틀림없이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얼마나 힘들까?'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선불리 판단하고 결정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고, 상대방이 무엇을 왜 그랬는지, 나의 판단과 결정에 잘못은 없었는지, 잘못된 판단을 당연한 것처럼 결정하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냉정하게 역지사지로 되돌아보고, 뒤늦게라도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이버에서 '프레임의 법칙'을 검색하면 뜻과 예문이 많이 나옵니다. 우연히 보게 된 글이지만 마음에 깊이 찰려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정낙귀 집사

##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누가복음 19 : 1~10

인도 : 최기찬 전도사

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코로나로 인한 고아>

미국에서 코로나19로 14만 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고아가 됐거나 홀로 남겨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성년자 14만 2천여 명이 부모 등 보호자를 모두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미성년자 500명 중 1명꼴이며 고아 위기에 놓인 아이 중 65%는 유색·소수 인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2차 비극"이라며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가나안 농군학교>

- 1) 2021년 한 해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 2) 다시 가나안을 세워가는 여정 가운데 시험 없도록 지켜주시고 모두가 육간에 강건함 가운데 기쁨으로 회복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 3)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안적 삶과 교육이 가나안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중국 이지성 선교사 가정과 교회 이사 위해, 노효종 목사님 비자문제로 입국을 위해
- 2) 멋쟁이학교 테마여행과 어린이학교 도보여행 답사를 위해
- 3) 주일에 있을 공청회를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10월 중순 가을 하늘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흐린 하늘을 보기도 하지만, 요즘은 하늘이 참 맑다는 생각에 기분이 참 좋습니다. 월요일은 한글날 대체공휴일로 모두가 쉬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멋쟁이 학교에서는 진안 장수로 테마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공동체 밭에서는 수확한 깨를 털고 고구마를 캐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말에 예고된 한파에 대비한 비닐 작업도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살다보니 갑작스러운 한파 소식에 여러가지로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절의 뚜렷한 변화에 대비하며 살기에 한국인이 부지런해졌다는 말이 더욱 실감이 납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기도합니다. <정재훈 목사 >